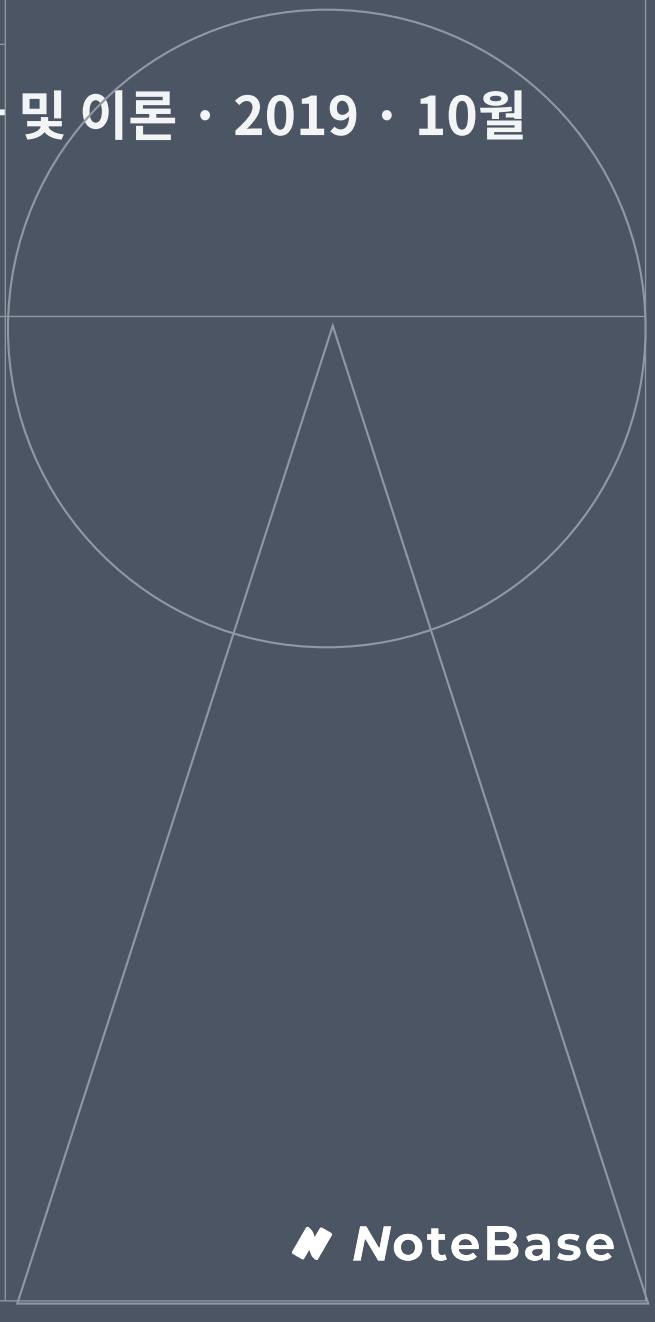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9 · 10월

문 1. 풍경식 정원에 대한 이론가이자 설계자로, ‘Landscape Gardener’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① 란셀롯 브라운(L. Brown)

② 윌리엄 챔버(W. Chamber)

③ 알렉산더 포프(A. Pope)

④ 험프리 렙턴(H. Rept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국 풍경식 정원사 가운데 'Landscape Gardener'라는 직함을 처음 사용한 인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랜슬롯 브라운: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자이며 자연스러운 초지와 수면, 완만한 지형을 강조한 인물이다.
윌리엄 챔버: 중국식 정원과 동양 정원론을 소개한 인물이며 『동양 정원론』 계열의 담론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 포프: 정원 설계 실무가라기보다 시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경관 취향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험프리 렙턴: 브라운 이후 활동한 설계자이며 자신을 'Landscape Gardener'라고 칭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랜슬롯 브라운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자이지만 'Landscape Gardener'라는 직함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처음 도입한 사람'이며, 올바르게는 '브라운은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자'이다.

② X
윌리엄 챔버는 동양 정원론을 소개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Landscape Gardener'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인물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며, 올바르게는 '챔버는 동양 정원 담론과 관련된 인물'이다.

③ X
알렉산더 포프는 시인이자 정원 미학에 영향을 준 인물이지만 전문 설계 직함으로서 'Landscape Gardener'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며, 올바르게는 '포프는 문학과 미학 측면에서 풍경식 정원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④ O
험프리 렙턴은 브라운 이후 활동하면서 자신을 'Landscape Gardener'라고 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풍경식 정원의 이론가이자 설계자로서 해당 용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오답 포인트

브라운이 가장 유명한 풍경식 정원 설계자라는 점 때문에 ①로 기울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대표 설계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Landscape Gardener'라는 직함을 처음 사용한 인물을 묻는 문제이므로 용어의 최초 사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에서는 인물의 유명세보다 업적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다. 풍경식 정원의 대표 설계자는 브라운, 동양 정원 담론은 챔버, 문학적 영향은 포프, 'Landscape Gardener'라는 직함은 렙턴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렙턴은 Landscape Gardener, 브라운은 Capability Brown, 챔버는 동양 정원론, 포프는 시인이라는 축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네덜란드 근대 공원의 효시라 불리는 보스 공원(Bos Park)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적이고 수동적인 레크리에이션 공원으로 몬드리안의 회화와 추상적 형태에서 유래되었다.

② 식물학자, 공학자, 건축가, 사회학자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지향하였다.

③ 지형을 조정하고 인공경관을 조성하여 저습지 부지의 숲속에 스포츠 시설을 새겨내듯 조성하였다.

④ 숲은 일관되게 변화가 없이 조성하여 의도적으로 자연을 풍부하게 조성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네덜란드 근대 공원의 효시로 평가되는 보스 공원의 성격이 정적·장식적 공원인지, 아니면 활동적·기능주의적 공원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스 공원은 근대적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공원이다. 영국 풍경식 공원과 독일 민중공원의 선례를 참고하되, 숲·초지·수공간·운동시설을 기능적으로 조직한 점이 핵심이다.
정적 장식 공원은 감상과 산책 중심의 수동적 이용이 강하다. 반면 보스 공원은 시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용하는 적극적 이용 공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레크리에이션 공원"과 "몬드리안의 회화와 추상적 형태에서 유래"라는 표현이다.
- 보스 공원은 근대 공원의 효시로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공원에 가깝다.
- 실제로는 영국 풍경식 공원과 독일 민중공원의 영향을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기능주의적 공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② O
- 보스 공원은 식물학자·생물학자·공학자·건축가·사회학자·도시계획가 등 여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된 근대 공원으로 설명된다.
- 장식보다 사회적 이용과 자연친화적 공원 유형을 지향한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③ O
- 보스 공원 부지는 저지대 간척지였고, 이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숲·초지·수공간과 함께 운동장, 물놀이 시설, 야외극장 등 활동 시설을 배치하였다.
- 저습지 부지의 인공적 조성과 스포츠 시설 도입이라는 설명은 보스 공원의 기능주의적 성격과 부합한다.

④ O
- 보스 공원은 장식용 정형 공원이 아니라 넓은 숲을 기본으로 초지와 수공간을 결합해 자연이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조성한 공원이다.
- 숲을 배경으로 자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보스 공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보스 공원이 네덜란드 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데 스틸이나 몬드리안의 추상 회화와 직접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①의 "수동적"과 "몬드리안의 회화"라는 표현에 있으며, 보스 공원은 오히려 활동성과 기능성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 공원 사례가 나오면 먼저 이용 성격을 본다. 감상과 산책 중심이면 전통적 수동형 공원에 가깝고, 운동·놀이·대중 여가를 조직적으로 수용하면 근대 기능주의 공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보스 공원은 수동형이 아니라 활동형 근대 공원이며, 장식보다 기능과 레크리에이션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3. 이슬람 정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성과 상징성이 없는 꽃과 나무들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② 이슬람 문화의 정원은 우주에 대한 종교적 이해의 표현이기도 했다.

③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단(壇) 형태의 차부트라(chabutra)는 정원의 휴식 장소이다.

④ 무어인의 정복지였던 스페인 지역에 많은 이슬람 정원 유산을 남겼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슬람 정원이 종교적 상징만을 위한 폐쇄적 식재가 아니라 낙원 상징, 기후 대응, 휴식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라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이슬람 정원은 물, 그늘, 향기, 과실, 기하학적 질서를 통해 낙원과 우주 질서를 상징하는 정원이다. 식재는 상징성만으로 고르지 않고 그늘 제공, 향기, 열매, 미관 같은 실제 효용도 함께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종교성과 상징성이 없는 꽃과 나무들은 철저히 배제"이다. 이슬람 정원은 상징 식물을 활용했지만, 식재를 종교 상징성만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그늘을 만드는 수목, 향기 나는 꽃, 열매 맺는 식물 등 감각적·기능적 가치가 있는 식물도 널리 사용하였다.
2번: O. 이슬람 정원은 낙원과 우주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려는 종교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기하학적 구획, 수로, 중심축은 이런 질서 의식을 드러낸다.
3번: O. 차부트라(chabutra)는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단 형태의 시설로, 정원 안에서 앉거나 쉬는 장소로 쓰였다. 무굴계 이슬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요소이다.
4번: O. 이슬람 세력, 특히 무어인의 지배를 받은 스페인에는 알함브라, 헤네랄리페처럼 대표적인 이슬람 정원 유산이 남아 있다.

오답 포인트

1번의 함정은 "철저히 배제" 같은 절대 표현이다. 이슬람 정원의 종교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사실은 맞지만, 이를 식재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과장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슬람 정원 문제에서는 낙원 상징과 기하학 질서가 맞는 축인지 먼저 본다. 그다음 식재나 시설 설명이 절대 표현으로 과장되었는지, 실제 휴식·차경·기후 대응 기능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슬람 정원은 낙원 상징의 정원이지만 식재는 상징성만이 아니라 물, 그늘, 향기, 휴식 기능까지 함께 본다.

NoteBase

문 4. 프랑스 풍경식 정원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국-중국풍 정원(jardin anglochinois) 취향이 깊게 반영되었다.

②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정원구조물로 구성되었다.

③ 초기 영국 정원의 목가적 풍경과 일본식 정원 취향을 반영하였다.

④ 기존 정원의 전체를 수정하거나 개조하는 방법으로 조성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프랑스 풍경식 정원의 성립 배경과 양식적 특징을 정형식 정원 및 동양 취미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프랑스 풍경식 정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정형식 정원의 기하학성과 인공성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자연풍 정원이다.
핵심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자연주의에 중국 취미가 더해진 anglo-chinois 경향이며, 장식적 파브리크와 불규칙한 경관 구성이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프랑스 풍경식 정원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자연주의와 중국 취미가 결합된 anglo-chinois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따라서 영국-중국풍 정원 취향이 깊게 반영되었다는 진술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정원구조물"이다. 프랑스 풍경식 정원에 놓인 파브리크는 대체로 감상적·장식적 장치였으며, 실제로는 정자·사원·폐허·동굴 같은 비실용적 구조물이 많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일본식 정원 취향"이다. 프랑스 풍경식 정원은 초기 영국 정원의 목가적 풍경에 중국 취미가 더해진 양식이지, 일본식 정원 취향을 반영한 양식은 아니다.
④ X: 틀린 부분은 "기존 정원의 전체"이다. 프랑스 풍경식 정원은 기존 정형식 정원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별도의 구역을 풍경식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지, 정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정·개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동양 취미를 모두 일본식으로 뭉뚱그리거나, 파브리크를 기능 시설로 오해하거나, 부분 개조를 전체 개조로 과장하면 쉽게 틀리도록 만든 문제이다. 특히 ③의 "일본식"과 ④의 "전체" 같은 단어 하나가 정오를 가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풍경식 정원 관련 선지는 먼저 정형식에 대한 반동인지, 영국 영향인지, 중국 취미인지, 구조물이 장식적인지 실용적인지를 차례로 본다. 여기에 맞지 않는 일본식, 축선 중심, 전면 개조, 실용 시설 중심 같은 표현이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프랑스 풍경식 정원은 영국 자연풍 + 중국 취미 + 장식적 파브리크 + 부분적 개조의 조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5. 16세기 로마 정원인 벨베데레와 빌라 마다마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벨베데레에는 노단 건축법, 기하학적 대칭, 축의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② 벨베데레 조영과정에서 테라스와 계단, 분천 등이 도입되었다.

③ 빌라 마다마의 비알레(Viale: 가로수길) 조영에 수목과 조각이 함께 처음 사용되었다.

④ 피사, 시에나 등 중세도시 근교에 메디치 가문이 주도하여 조성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16세기 로마 정원인 벨베데레와 빌라 마다마의 건축적 정원 구성과, 그보다 앞선 메디치 계열의 피렌체권 르네상스 정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6세기 로마 정원은 고전 건축의 질서를 정원에 강하게 끌어들여 축, 대칭, 노단, 계단, 분천을 결합한 정원 양식이다.
벨베데레는 축선과 기하학적 대칭, 노단식 구성이 두드러지는 로마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빌라 마다마는 비알레와 테라스, 조각과 수목의 결합으로 장면성을 강화한 로마 르네상스 정원의 전개를 보여준다.
메디치 가문이 주도한 초기 르네상스 정원은 주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권 별장 정원으로, 16세기 로마 정원과 시기와 후원 세력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벨베데레는 정원을 순수한 식재 공간이 아니라 건축적으로 조직된 공간으로 다루면서 노단, 기하학적 대칭, 축 개념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본다. 선지의 진술은 로마 정원의 핵심 성격과 맞는다.

② O
벨베데레 조성 과정에서는 경사지 대응을 위한 테라스와 계단, 그리고 분천 등 수경 요소가 함께 도입되어 공간의 입체감과 축적 연출을 강화하였다.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③ O
비알레는 가로수길 성격의 축선 공간이며, 빌라 마다마는 수목과 조각을 함께 배치하여 길의 장면성과 원근감을 높인 로마 정원 사례로 정리된다. 선지의 설명은 시험 범위의 일반적 정리와 부합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피사, 시에나 등 중세도시 근교에 메디치 가문이 주도하여 조성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메디치 가문이 주도한 것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권의 초기 르네상스 정원 계열이고, 벨베데레와 빌라 마다마는 16세기 로마에서 교황청과 추기경 계열의 후원 아래 전개된 정원이다.

오답 포인트

르네상스 정원이라는 큰 범주만 기억하면 메디치 가문, 피렌체권 정원, 로마 정원을 한 덩어리로 섞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이라도 15세기 토스카나권과 16세기 로마권의 후원 세력과 전개 무대를 뒤바꿔 놓은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르네상스 정원 문항은 먼저 시기, 지역, 후원자를 묶어서 판단한다. 메디치 가문이면 대체로 피렌체 중심의 초기 토스카나권 정원을 떠올리고, 벨베데레·빌라 마다마처럼 축과 대칭, 노단, 분천이 강조되면 16세기 로마 정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메디치는 피렌체권 초기 정원, 벨베데레·빌라 마다마는 16세기 로마 정원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6. 전통 수경관 중 호안에 직선과 곡선의 대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지당(池塘)은?

① 안압지
② 경회루지
③ 부용지
④ 반도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지당의 평면과 호안 처리 방식 가운데 직선과 곡선의 대비가 가장 뚜렷한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압지는 호안의 한쪽은 직선적으로,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굴곡지게 처리하여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살린 지당이다.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이 결합한 방지원도형의 대표 예이다.
반도지는 반도형 평면이 드러나는 지당이고, 경회루지는 궁궐 누각을 둘러싼 대형 연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안압지는 서·남쪽의 직선적 석축과 동·북쪽의 굴곡진 호안이 대비되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 사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경회루지를 정답으로 고른 점이다. 경회루지는 누각을 중심으로 한 넓은 연못이지만, 호안의 직선과 곡선 대비를 대표하는 지당으로 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안압지가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부용지를 정답으로 고른 점이다. 부용지는 방형의 연못과 원형 섬이 결합한 방지원도형의 대표 사례이다. 올바르게는 직선과 곡선의 대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지당은 안압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반도지를 정답으로 고른 점이다. 반도지는 반도형 평면이나 그 형태적 상징성이 핵심이지, 직선과 곡선 호안의 대비를 대표하는 지당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안압지가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유명한 연못 이름만 외우면 경회루지나 부용지로 흔들리기 쉽다. 이 문제는 연못의 유명세가 아니라 호안선의 조형 특징을 묻고 있으므로, 방지인지 곡지인지, 직선 위주인지 곡선 위주인지, 두 요소를 대비시켰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지당 문제에서 특정 사례를 고를 때는 먼저 평면 형식과 호안선을 본다.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이면 부용지, 반도형이면 반도지, 직선 석축과 굴곡진 호안의 대비가 핵심이면 안압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압지=직선 석축+곡선 호안의 대비, 부용지=방지원도, 반도지=반도형 지당이다.

NoteBase

문 7. 담양 소쇄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풍각과 제월당

② 오곡류와 통루

③ 수계와 매대

④ 곡수당과 동천석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담양 소쇄원의 공간명과 소쇄원 48영에 보이는 경관 요소를, 다른 전통원림의 공간명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쇄원은 광풍각, 제월당, 오곡문 일대의 물길, 매대처럼 담양 소쇄원 자체의 건물·화계·수경 요소로 이해하면 된다.
곡수당과 동천석실은 담양 소쇄원이 아니라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대표 공간명이다.
수계는 여기서 水系가 아니라 脩階로, 길게 놓인 섬돌을 뜻하는 소쇄원 48영의 경관 명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광풍각과 제월당은 소쇄원의 대표 건물이다. 광풍각은 손님을 맞는 공간이고 제월당은 주인이 거처하는 공간이므로 소쇄원 관련 내용으로 옳다.
② O - 오곡류와 통류는 모두 소쇄원의 물길과 관련된 경관 요소로 볼 수 있다. 오곡류는 오곡문 일대의 굽이 흐르는 계류를 가리키고, 통류는 물을 흘려 보내는 수경 요소를 뜻하므로 소쇄원과 연결된다.
③ O - 수계와 매대도 소쇄원 관련 요소이다. 수계는 긴 섬돌을 뜻하는 경관 명칭이고, 매대는 제월당과 오곡문 사이의 화계이므로 소쇄원에 실제로 대응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곡수당과 동천석실"이다. 이 둘은 담양 소쇄원이 아니라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공간명이다. 올바르게는 소쇄원 관련 요소로 광풍각·제월당, 오곡류·통류, 수계·매대 같은 명칭이 와야 한다.

오답 포인트

물과 계류가 중심인 전통원림은 명칭이 서로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특히 ④의 곡수당은 이름만 보면 소쇄원의 계류 공간과 어울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시설이다. 또한 ③의 수계를 현대어의 水系로 읽으면 뜻이 어긋나므로, 이 문항에서는 脩階라는 고유 경관 명칭으로 읽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원림 문항에서 공간명만 제시되면 먼저 어느 원림의 대표 건물인지부터 묶어 판단하면 된다. 소쇄원은 광풍각·제월당·오곡문·매대 쪽으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세연정·낙서재·곡수당·동천석실 쪽으로 정리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은 광풍각·제월당, 보길도 원림은 곡수당·동천석실이다.

문 8. 경복궁 향원지(香遠池)의 작명(作名) 배경이 되는 인물은?

① 정이(程頤)

② 주희(朱熹)

③ 주렴계(周濂溪)

④ 왕양명(王陽明)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복궁 향원지의 명칭이 어떤 인물의 글에서 유래했는지를 묻는 인물·작품 배경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이(표기 한자: 程頤): 북송 성리학 계열 인물로 천리와 심성의 문제를 논한 인물이다.
주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학의 대표 학자이다.
주렴계: 주돈이의 호로, 「애련설」에서 연꽃의 성품을 예찬하며 '향원익청'이라는 구절을 남긴 인물이다.
왕양명: 양명학의 대표 인물로 지행합일과 치양지를 강조한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이와 경복궁 향원지의 작명 배경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향원지의 배경 인물을 정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주렴계의 「애련설」에서 나온 '향원익청'의 뜻과 연결된다.

② X
주희는 성리학의 집대성자이지만 향원지의 명칭 근거가 된 글의 저자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작명 배경 인물을 주희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주렴계가 배경 인물이다.

③ O
주렴계는 주돈이의 호이며, 「애련설」의 '향원익청' 구절이 향원지 명칭의 배경이 된다. 향원지는 연꽃의 향기가 멀리 퍼질수록 더욱 맑다는 뜻을 취한 이름이다.

④ X
왕양명은 양명학의 대표 인물로 향원지의 명칭 유래와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작명 배경 인물을 왕양명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주렴계가 배경 인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희, 정이, 왕양명은 모두 유교 사상사에서 익숙한 이름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문항은 사상 일반이 아니라 향원지라는 구체적 명칭의 출전 문구를 묻는다. '향원'이라는 글자 자체가 주렴계의 「애련설」 구절과 연결된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성리학자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원지의 명칭이나 정원 요소의 작명 배경을 묻는 문제는 먼저 이름에 들어 있는 한자어가 어느 고전 문구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향원'처럼 특정 어구가 보이면 관련 고전과 저자를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향원지 = 주렴계 「애련설」 = 향원익청이다.

NoteBase

문 9. 별서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별서정원의 기원은 삼국시대 임천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별서정원은 주로 산수가 수려하고 거주공간과 마을에서 격리된 외진 곳에 위치한다.

③ 자연과의 일치감을 중요시하여 인위적인 군식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수양버들은 순간적 부귀영화보다는 장구한 부귀영화에 대한 바람으로 식재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별서정원의 기원, 입지 성격, 자연순응 방식, 식재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서정원은 본거주 공간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가 아니라 경승지에 마련한 별업적 정원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조영을 중시하지만 필요한 범위의 연못, 군석, 담장, 식재 같은 인공 요소는 절제하여 사용한다. 한국 별서정원의 계보는 삼국시대 임천정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에 선비 문화와 결합하며 뚜렷하게 발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별서정원의 기원을 삼국시대의 임천정원에서 찾는 설명은 타당하다. 한국 정원은 삼국시대의 임천정원 전통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고, 조선시대에 별서정원으로 성격이 구체화되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주거공간과 마을에서 격리된 외진 곳"이다. 별서정원은 경치 좋은 곳에 두지만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에 두는 개념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본거주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왕래 가능한 경승지나 전원지에 조성한 별업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군석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이다. 별서정원은 자연과의 일치감을 중시하지만 인공적 조영기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연 지형을 살리면서도 연못, 군석, 담장, 정자 같은 인공 요소를 절제하여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장구한 부귀영화에 대한 바람"이다. 수양버들은 전통정원에서 물가의 경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수변을 보호하는 기능적 이유와 풍류적 정취를 위해 식재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르게는 장구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식재라고 보기보다 수변 경관 연출과 실용적 기능을 함께 가진 수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별서를 은둔 공간으로만 과장해 외진 오지 개념으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③은 자연순응을 인공 배제와 동일시한 절대 표현이 함정이다. ④는 전통 식재의 상징성과 기능을 혼동하게 만들어 부귀영화 상징 식물 이미지를 다른 수종과 뒤섞게 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정원 문제는 기원, 입지, 자연순응의 의미를 축으로 판단하면 정리가 쉽다. 기원은 임천정원 계보인지, 입지는 왕래 가능한 경승지인지, 자연순응은 인공 요소의 완전 배제가 아니라 절제된 활용인지로 구분하면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별서정원은 임천정원 계보, 왕래 가능한 경승지, 자연순응 속 절제된 인공 활용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능원의 구성요소 중 능역의 정자각 앞쪽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신성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 놓은 것으로,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고 위에 심방과 띠장을 가로질러 가는 나무살을 박았으며, 중앙에 삼지창과 태극문양이 있는 건축물은?

① 비각

② 수라간

③ 홍전문

④ 수복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능원의 구성 요소 중 홍전문의 위치와 형태적 특징을 다른 부속 건물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비각은 능 주인공의 표석이나 신도비를 보호하는 작은 비석각이다.
수라간은 제향 음식의 데우기나 간단한 조리를 담당하는 부속 건물이다.
홍전문은 능역의 참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신성구역임을 알리는 붉은 문으로, 기둥 사이에 살을 세우고 중앙에 삼지창과 태극문양을 둔다.
수복방은 능을 지키는 능지기가 머무는 관리용 건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비각은 비석을 보호하는 건물이지 참도 시작점에 세우는 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능역 입구의 문처럼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표석이나 신도비를 덮어 보호하는 소규모 건물이다.
2번 X: 수라간은 제향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 기능의 건물이다. 틀린 표현은 기둥 사이에 살을 박은 상징적 문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정자각 주변에 배치되는 조리 공간이다.
3번 O: 홍전문은 신성구역 진입을 알리는 문으로, 양 기둥 위에 인방과 띠장을 걸고 가는 살을 세우며 중앙에 삼지창과 태극문양을 두는 형식이 핵심이다. 문제의 설명이 이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4번 X: 수복방은 능지기가 머물며 능을 수호하는 건물이다. 틀린 표현은 태극문양이 있는 출입 표지 구조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사람이 거처하는 관리용 부속 건물이다.

오답 포인트

비각, 수라간, 수복방은 모두 능원 부속 시설이지만 건물 용도가 다르다. 이 문항은 용도보다 형태를 묘사해 두었으므로, 문짝 없는 붉은 살문과 태극문양이라는 시각적 단서를 놓치면 건물명만 보고 헷갈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능원 시설 문제는 먼저 문인지 건물인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비석 보호, 제향 조리, 수호 거처, 신성구역 표시 중 어느 기능인지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홍전문은 붉은 살과 태극문양의 문, 비각은 비석집, 수라간은 제향 부엌, 수복방은 능지기 거처이다.

NoteBase

문 11. 일본 정원지침서로 알려진 『작정기(作庭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침전조계 정원 건축과의 관계

② 원지를 만드는 방법

③ 지형의 취급방법

④ 입지선정 방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정원서 『작정기』가 다루는 범위가 침전조계 건축과의 관계, 지형 판독, 연못 조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입지선정론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작정기』는 일본 최고(最古)의 작정서로, 침전조를 전제로 정원과 건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입석, 연못, 섬, 물길, 폭포, 수목, 샘 등의 조성 원리를 다룬다. 핵심은 주어진 대지 안에서 지형과 건축에 맞추어 정원을 구성하는 방법이지, 부지 자체를 고르는 일반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작정기』는 침전조 양식의 건축을 전제로 남정원의 폭, 계단 전면과 연못 물가의 거리, 섬과 다리의 배치처럼 정원과 건축의 관계를 설명한다. 따라서 침전조계 정원 건축과의 관계는 기록 내용에 포함된다.
2번: O. 연못을 팔 때 지형을 보고 연못의 형상, 섬의 위치, 유입수와 배수 방향을 정한다는 식의 서술이 있어 원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룬다. 연못과 섬, 물길 조성은 『작정기』의 핵심 내용이다.
3번: O. 돌을 세우고 연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지형을 살피고 그 형세에 따라 구상하라고 하므로 지형의 취급방법이 포함된다. 자연 산수의 형세를 읽어 배치에 반영하는 태도가 중요한 원리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입지선정 방법'이다. 『작정기』는 정원을 꾸밀 부지 자체를 일반론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주어진 부지의 지형과 건축 조건에 맞추어 정원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다룬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형을 본다, 사신상응을 중시한다는 표현만 보고 이를 곧바로 현대적 의미의 입지선정론으로 확대하면 4번에 끌리기 쉽다. 이 책의 중심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연못·섬·돌·물길을 놓을 것인가'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정원서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는 부지 자체의 선정 단계인지, 이미 정해진 부지 안에서의 배치·조성 단계인지 먼저 구분한다. 『작정기』처럼 작정 원리를 다루는 책은 대체로 후자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작정기』 = 침전조 관계, 지형 판독, 연못·섬·물길 조성이다. 일반적 입지선정론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읍성의 공간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헌과 같은 중심 관아시설은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읍성의 중심인 명당에 자리잡았다.

② 읍성의 형태는 원형, 방형, 부정형 등이 있으며, 대부분 부정형이다.

③ 성곽 내부의 땅 가름은 간선도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T자형과 +자형이다.

④ 사직단과 향교, 문묘 등의 종교와 교육시설도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읍성의 공간구성에서 중심 관아시설의 입지, 성곽 평면 형태, 내부 가로체계, 제의·교육시설의 배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읍성은 행정과 군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던 고을의 성곽 공간이다.
중심 관아시설은 객사·동헌 등 고을 운영의 핵심 건물군으로, 풍수와 행정 축을 고려해 중요한 자리에 놓였다.
읍성의 내부 공간은 성문을 잇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나뉘며, 제의·교육시설로는 사직단·향교·문묘 등이 함께 배치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 기본이며, 지형 조건에 따라 원형이나 부정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동헌과 같은 중심 관아시설은 읍성의 핵심 공간에 놓였고, 풍수지리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행정 중심 건물군을 명당과 중심축에 두는 설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대부분 부정형이다"이다.
읍성은 원형·방형·부정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기본 형식은 방형에 가깝다. 지형에 따라 부정형이 나타나기도 하나 이를 대부분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틀리다.
틀린 표현 → 대부분 부정형이다
올바르게는 → 대부분 방형이며, 지형에 따라 원형이나 부정형도 나타난다.

③ O
성곽 내부의 공간 구획은 성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가로체계는 T자형과 +자형이다. 읍성 내부 토지 가름을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다.

④ O
읍성에는 행정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직단, 향교, 문묘와 같은 제의·교육시설도 함께 배치되었다. 읍치 공간이 행정·의례·교육 기능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실제 읍성 사례 중 부정형이 눈에 띄어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그러나 개별 사례의 인상과 일반 원칙은 다르며, 읍성의 기본 계획 형식은 방형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읍성 문제는 먼저 중심 관아시설의 위치, 성문을 잇는 간선도로 형태, 제의·교육시설의 존재를 떠올린다. 그다음 평면 형태는 기본형이 방형이고, 부정형은 지형 적응의 결과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읍성은 중심 관아 + T·십자형 가로 + 사직단·향교, 형태의 기본은 방형이다.

NoteBase

문 13. '재(齋)'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경치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주로 조성한다.

② 조용히 침잠하여 학문에 정진하고 수신하는 장소이다.

③ 흙이나 돌을 높게 쌓아 올리거나 자연 암반에 주로 입지한다.

④ 경관 조망이 용이하게 높고 활짝 트인 곳에 자리잡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원림 건축 명칭 중 재(齋)의 기능을 정자·누정·대와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齋)는 조용히 머물며 독서·강학·수양을 하는 서재 성격의 공간이다. 정자·누정은 경치를 감상하고 조망하는 공간이고, 대(臺)는 흙이나 돌을 높여 만든 터나 그 위의 조망 공간을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재는 경치를 즐기는 감상용 공간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위한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경치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올바르게는 정자·누정이 이런 기능을 맡는다.
② O. 재는 조용히 침잠하여 학문에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장소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흙이나 돌을 높게 쌓아 올리거나 자연 암반에 주로 입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설명은 대(臺)나 조망용 기반에 가깝고, 재는 학문과 수양을 위한 건물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경관 조망이 용이하게 높고 활짝 트인 곳"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입지와 성격은 누정류 건축에 가깝고, 재는 조망보다 독서와 수양 기능이 중심이다.

오답 포인트

재를 정자와 같은 원림 감상 공간으로 외우면 ①,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건물 이름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기능을 바꾸어 놓은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원림 건축 용어는 먼저 주기능으로 구분한다. 독서·강학·수양이면 재, 경관 감상과 조망이면 정자·누정, 흙이나 돌을 높인 터나 그 위 공간이면 대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재는 독서·수양의 공간이고, 정자·누정은 감상·조망의 공간이며, 대는 높인 터이다.

NoteBase

문 14. 중국 명시대 원림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독락원
② 졸정원
③ 정명원
④ 대자사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원림의 대표 사례를 시대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독락원은 북송 사마광의 사적 원림이다.
졸정원은 소주에 조성된 명대의 대표적 사가원림이다.
정명원은 북경 삼산오원 체계에 속하는 청대 황가원림이다.
대자사원은 당대 원림 계열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 해설

1번 X: 독락원은 명대 원림이 아니라 북송 문인 사마광의 원림이다. 틀린 표현은 "명시대 원림"에 독락원을 넣은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독락원은 북송대 원림이다"가 된다.
2번 O: 졸정원은 소주에 조성된 명대의 대표 원림이다. 왕헌신이 16세기 초에 조성한 정원으로, 명대 사가원림의 전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3번 X: 정명원은 명대 원림이 아니라 청대 북경의 황가원림이다. 틀린 표현은 정명원을 명시대 원림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정명원은 청대 원림이다"가 된다.
4번 X: 대자사원은 명대 원림으로 보기 어렵고 당대 원림 계열로 분류된다. 틀린 표현은 대자사원을 명시대 원림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대자사원은 당대 원림이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중국 원림사는 사가원림과 황가원림, 그리고 당·송·명·청의 시대 구분이 함께 섞여 나와 혼동되기 쉽다. 특히 정명원처럼 유명한 청대 황가원림과 졸정원 같은 명대 사가원림을 같은 계열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림 문제가 나오면 먼저 사가원림인지 황가원림인지 나누고, 그 다음 대표 명칭을 시대와 연결해 판단한다.
졸정원은 명대 소주 원림, 정명원은 청대 북경 황가원림, 독락원은 송대 문인원림으로 잡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졸정원은 명, 독락원은 송, 정명원은 청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5. 중국 청시대 원림인 이화원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크게 만수산 공간과 곤명호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② 건축물의 배치는 전조후침이고, 주택과 같은 분위기이다.

③ 사가원림으로 물이 중심인 원림이다.

④ 만수산 남측은 건물군으로, 북측은 호수와 수목으로 이루어졌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원림의 유형과 이화원의 공간 구성, 특히 황가원림과 사가원림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황가원림은 황제와 황실을 위한 대규모 원림으로 궁전·행정·생활·유람 기능이 함께 들어가는 원림이다.
사가원림은 사대부나 문인이 개인 거주와 감상을 위해 조성한 비교적 사적인 원림이다.
이화원은 만수산과 곤명호를 기본 골격으로 한 청대의 대표적 황가원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화원은 만수산과 곤명호를 중심으로 짜인 원림이다. 만수산과 곤명호가 전체 공간의 기본 틀을 이루므로 옳다.

② O
이화원 동부 생활 구역은 앞쪽의 정치·의례 공간과 뒤쪽의 침전·생활 공간이 이어지는 전조후침 성격을 보인다. 생활 구역은 실제 거처 기능을 가져 주택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가원림'이다. 이화원은 개인 문인의 사적 정원이 아니라 황제와 황실을 위한 황가원림이다. 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원림의 성격을 사가원림으로 본 것이 틀렸다.

④ O
만수산 남측은 불향각·배운전 등 주요 건축군이 집중된 화려한 공간이고, 북측은 후호와 수목이 어우러진 비교적 자연적인 경관 공간이다. 남북 사면의 성격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물이 중심'이라는 맞는 특징 앞에 '사가원림'이라는 틀린 분류를 붙여 혼동을 유도한다. 이화원은 수면 비율이 높아도 분류상 황가원림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원림 문제는 먼저 원림의 소유 주체와 조성 목적을 본다. 황제의 거처·정치·유람 기능이 함께 있으면 황가원림이고, 개인의 거주와 감상을 위한 정원이면 사가원림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화원은 만수산·곤명호를 축으로 한 청대 황가원림이며, 사가원림이 아니다.

NoteBase

문 16. 일본 서방사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겸창시대에는 정토종 사원, 실정시대에는 선종사원의 역할을 하였다.

② 1339년에 몽창국사가 서방사라 개명하였고, 선종의 이상향을 구현하였다.

③ 이끼가 가득한 곳으로 태사(苔寺)라고도 부른다.

④ 크게 상·하단으로 구분되고, 상단은 지천회유식 정원, 하단은 고산수 정원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서방사정원의 시대적 성격, 개칭 경위, 별칭, 상·하단 공간구성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방사정원은 오늘날 사이호지(西芳寺, 이끼사)로 알려진 정원이다.
겸창시대에는 정토계 사원 성격이 강했고, 1339년 몽창국사에 의해 선종 사원으로 재흥되면서 선의 정신을 반영한 정원으로 전개되었다.
공간구성의 핵심은 상단은 고산수, 하단은 황금지를 중심으로 한 지천회유식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겸창시대에는 정토종 계열 사원의 성격을 지녔고, 실정시대에는 선종사원의 역할을 하였다는 설명으로 맞다.
서방사는 시대에 따라 정토적 성격에서 선종적 성격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② O
1339년에 몽창국사가 절을 재흥하면서 같은 음의 '서방사'이되 글자를 바꾸어 西芳寺로 고쳤고, 선종의 이상향을 반영한 정원을 만들었다는 취지이므로 맞다.

③ O
서방사는 경내가 이끼로 널리 덮여 있어 '태사(苔寺)'라고도 불린다. '이끼가 가득한 절'이라는 별칭 설명이므로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상단은 지천회유식 정원, 하단은 고산수 정원'이라는 배치이다.
실제로는 상단이 고산수 정원이고, 하단이 황금지를 중심으로 한 지천회유식 정원이다. 상·하단의 구성을 서로 뒤바꾼 오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방사는 고산수와 지천회유식이 한 정원 안에 함께 있어 양식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④처럼 상단과 하단의 위치를 바꾸어 제시하면 양식 자체는 익숙해 보여도 배치가 틀린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사찰정원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대 변화와 종파 변화, 다음으로 별칭, 마지막으로 상단·하단의 공간배치를 확인하면 된다. 서방사는 '선종 전환'과 '상단 고산수, 하단 지천회유식'만 기억해도 정답 판단이 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서방사=이끼사, 몽창국사 재흥, 상단 고산수·하단 지천회유식이다.

NoteBase

문 17. 일본 헤이안시대에 나타난 침전조 정원양식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삼보원
② 동삼조전
③ 이조성
④ 계리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헤이안시대의 침전조 정원양식과 그 대표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침전조 정원은 헤이안시대 귀족 주택인 침전조 건물 앞에 연못을 두고 건물과 수면 경관을 함께 구성하는 양식이다.
동삼조전은 이러한 헤이안 귀족 정원의 대표 사례로 본다.
삼보원은 후대의 사찰 정원 사례이고, 이조성과 계리궁은 모두 헤이안보다 훨씬 뒤 시기의 정원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삼보원은 다이고지의 정원으로 후대 정원사에서 거론되는 사례이다. 틀린 표현은 '헤이안시대 침전조 정원의 대표 사례'이고, 올바르게는 '후대의 사찰 정원 사례'이다.
② O: 동삼조전은 헤이안시대 귀족 주택 정원인 침전조 양식의 대표 사례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X: 이조성은 니조성으로 에도 시대의 성곽·궁전 공간에 속한다. 틀린 표현은 '헤이안시대 침전조 정원 사례'이고, 올바르게는 '에도 시대 성곽 정원 사례'이다.
④ X: 계리궁은 가쓰라 이궁으로 에도 초기의 별궁 정원 사례이다. 틀린 표현은 '침전조 정원의 대표 사례'이고, 올바르게는 '에도 초기 별궁 정원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일본 정원사는 정원 이름 자체보다 시대와 양식의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이조성, 계리궁처럼 유명한 사례가 보여도 헤이안시대 침전조인지 먼저 걸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 양식 문제는 먼저 시대를 잡고, 그 다음 대표 공간 유형을 연결하면 된다. 헤이안시대는 귀족 주택의 침전조 정원, 에도 시대는 성곽·별궁의 회유식 계열 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헤이안 침전조 정원 = 동삼조전이다.

NoteBase

문 18. 한국 전통정원에서 시선을 가리거나 공간의 깊이를 더하고, 관상하며 즐기기 위해 꽃나무를 심고 그 가지를 틀어 올려서 문이나 병풍처럼 꾸미는 기법은?

① 화오(花塢)

② 취병(翠屛)

③ 대식(對植)

④ 곡장(曲墻)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 전통정원의 식재 시설과 공간 장식 기법 가운데 취병의 정의를 다른 용어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취병은 꽃나무나 상록수의 가지를 틀어 올려 문이나 병풍처럼 만든 식물성 차폐·관상 시설이다.
화오는 꽃을 심는 자리를 장대석 등으로 낮게 둘러 만든 화단이다.
대식은 같은 수목을 좌우에 짝으로 마주보게 심는 식재 방식이다.
곡장은 굽은 형태의 담장으로 공간을 둘러 구획하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화오는 꽃을 심어 가꾸는 자리를 낮게 둘러 만든 화단을 뜻한다. 가지를 틀어 올려 병풍처럼 만드는 기법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꽃밭이나 화단 성격의 시설이다.
2번 O: 취병은 시선을 가리고 공간을 나누거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해 병풍처럼 만드는 시설이다. 발문의 '꽃나무를 심고 그 가지를 틀어 올려 문이나 병풍처럼 꾸민다'는 설명과 정확히 맞는다.
3번 X: 대식은 두 그루 또는 같은 수목을 좌우에 대응되게 심어 질서와 대칭성을 주는 식재 기법이다. 병풍형 차폐 시설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쌍으로 마주보게 심는 배식 기법이다.
4번 X: 곡장은 담장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식물 가지를 틀어 올리는 기법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공간 경계를 이루는 굽은 담장이다.

오답 포인트

화오, 취병은 모두 전통정원의 경관 요소이고 대식도 식재 기법이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발문에 '가지를 틀어 올려 문이나 병풍처럼'이라는 구조적 단서가 들어가면 화단인 화오나 쌍식재인 대식이 아니라 취병으로 바로 좁혀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식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본다. 꽃을 심는 자리이면 화오, 좌우 대칭으로 짝지어 심으면 대식, 담장 자체를 말하면 곡장, 가지를 엮어 차폐용 병풍이나 문처럼 만들면 취병이다.

암기 포인트

취병은 식물 병풍, 화오는 꽃 화단, 대식은 짝식재, 곡장은 굽은 담장이다.

NoteBase

문 19. 중국 명시대 계성이 저술한 『원야』의 10가지 기술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화훼(花卉)

② 상지(相地)

③ 입기(立基)

④ 옥우(屋宇)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성의 『원야』에 제시된 10가지 조원 기술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원야』의 10기술은 상지(相地), 입기(立基), 옥우(屋宇), 裝折, 門窓, 牆垣, 鋪地, 掇山, 選石, 借景으로 정리된다. 이는 부지 선정, 기초 설정, 건축, 담장, 포장, 산석, 차경 등 조원 과정의 기술 체계를 말하며, 화훼처럼 식재 재료 자체를 한 항목으로 세운 체계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화훼(花卉)는 꽃과 초화류를 뜻하는 식재 범주이므로 『원야』의 10가지 기술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화훼가 10기술 항목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원야』의 10기술에는 裝折, 門窓, 牆垣, 鋪地, 掇山, 選石, 借景과 같은 조원 기술 항목이 포함된다.

② O

상지(相地)는 땅의 형세와 입지를 살피는 항목으로 『원야』 10기술에 포함된다.

조영에 앞서 부지의 조건과 주변 맥락을 판단하는 기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입기(立基)는 건축이나 시설을 놓기 위한 기초와 터잡기를 다루는 항목으로 『원야』 10기술에 포함된다.

상지로 땅을 본 뒤 실제 조영의 기반을 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④ O

옥우(屋宇)는 정자·당·실 등 원림 내 건축물을 다루는 항목으로 『원야』 10기술에 포함된다.

원림에서 건축 배치와 공간 구성을 논하는 기술 범주로 이해하면 된다.

오답 포인트

화훼처럼 원림에서 자주 보이는 구성 요소를 보면 곧바로 『원야』의 기술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식재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원야』가 장 제목처럼 정리한 조원 기술 체계를 묻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야』의 10기술은 원림의 재료 목록이 아니라 조원 과정의 기술 항목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부지 선정, 기초, 건축, 담장, 포장, 산석, 차경처럼 조영 행위에 해당하면 포함되고, 화훼처럼 식재 대상 자체를 가리키면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원야』는 상지-입기-옥우로 시작해 담장·포장·산석·차경으로 이어지며, 화훼는 10기술에 들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안동 하회마을의 경관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이 산을 휘감아 돌아 산태극, 수태극을 이루는 마을이다.

② 화천이 동쪽에서 흘러들어 마을을 돌아 서쪽으로 흐른다.

③ 물자형(勿字形) 형국으로 서북쪽과 남동쪽 봉우리에서 뻗어 내려온 구릉에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④ 연꽃이 물에 떠있는 것 같은 지형으로 물이 새면 마을이 가라앉는다 하여 연못이나 샘은 파지 않았다고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동 하회마을의 입지 형국과 물길, 풍수적 별칭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하회마을은 낙동강 상류인 화천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곡류 지형의 전통마을이다. 핵심 키워드는 산태극·수태극, 연화부수형, 행주형이며, 물자형 구릉 마을 설명과 구별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이 산을 감싸고 물길이 다시 산을 휘돌아 나가는 형세 때문에 하회마을은 산태극·수태극의 대표 사례로 설명된다.

② O
하회마을은 화천이 마을을 감싸며 크게 굽이도는 물돌이 마을이다. 동쪽에서 들어온 물길이 마을을 돌아 서쪽으로 흐르는 곡류 경관을 설명한 선지로 볼 수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물자형(勿字形) 형국"과 "서북쪽과 남동쪽 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구릉에 주거지가 형성"되었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하회마을의 대표 형국이 아니라 경주 양동마을처럼 물자형 산곡과 여러 골짜기 주거지를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에 가깝다. 하회마을은 화산 자락과 화천의 곡류가 만든 산태극·수태극, 연화부수형, 행주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④ O
하회마을은 물에 뜬 연꽃과 같다는 연화부수형 또는 배가 떠가는 형국이라는 행주형으로도 불린다. 이런 풍수 인식 때문에 땅을 깊이 파는 일을 꺼려 연못이나 샘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이 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모두 전통마을이어서 형국 설명이 자주 섞인다. 특히 ③처럼 물자형, 봉우리, 골짜기형 주거지라는 표현은 양동마을 계열 설명인데, 수험생이 유명한 민속마을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넘기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마을 문제에서는 먼저 물길이 마을을 감싸 도는지, 여러 골짜기와 능선에 흩어지는지부터 본다.
하회마을처럼 강의 곡류가 핵심이면 산태극·수태극, 연화부수형을 떠올리고, 물자형 능선·골짜기 분촌 설명이 나오면 다른 마을 설명일 가능성을 본다.

암기 포인트

하회마을은 물돌이 마을, 양동마을은 물자형 골짜기 마을이라는 대비로 정리된다.

NoteBase